

한-케냐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5월 5주~6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해당년/월/주/일	전년/월/주/일	참고시점
환율(1USD)	129	129	2025.05
인플레이션(%)	4.1	3.6	2025.3월
CPI(points)	144	144	2025.4월
정부부채비율(% of GDP)	65.5	72	2024년

출처:trading economics

○ 케냐 정부, 2024/25 회계연도 세 번째 예산 조정 착수¹⁾

- 케냐의 공공 부채가 2025년 4월 기준 KES 11.36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증가에 기인하며, 세수 증가 둔화와 높은 채무 상환 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정부는 도로 건설을 위해 상업은행으로부터 USD 6억의 단기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연료세 수입을 담보로 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2025년 11월까지 아프리카 최초의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SLB)을 발행하여 USD 5억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는 예산 지원과 환경, 사회, 에너지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
- 이러한 조치는 2025/26 회계연도에 GDP 대비 3.9%의 재정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필수 공공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2025년 초 중국 수출 9% 감소²⁾

- 2025년 1분기 동안 케냐의 대중국 수출이 약 9% 줄어든 것으로

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markets/commodities/exports-to-china-fall-9pc-on-kwale-titanium-mine-closure-5048338>

2)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markets/commodities/exports-to-china-fall-9pc-on-kwale-titanium-mine-closure-5048338>

나타남. Kwale 지역에 위치한 티타늄 광산이 유지보수 작업으로 잠시 운영을 멈추면서, 주요 수출 품목인 티타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티타늄은 케냐의 대표적인 광물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광산 가동 중단은 전체 수출 흐름에 영향을 미쳤으며 같은 시기 양국 간 무역수지도 악화.

○ 케냐 항만청, 조달 비리 의혹³⁾

- 케냐 항만청(Kenya Ports Authority-KPA), 내부에서 입찰 절차 및 계약 조작 등의 조직적인 조달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해당 의혹은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과 함께, 정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
- 내부 제보와 문서 분석을 통해 기관 내 조직적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가 주요 수익기관의 제도적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힘.
-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의 거버넌스와 회계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조달 감시, 강화 필요성을 강조.

○ 정부의 신규 재정 집행으로 미지급금 KES 1,180억 감소⁴⁾

- 케냐 정부는 2025년 1분기에 미지급금 1,183억 케냐 실링(KES)을 감축함. 2024년 말 기준 KES 5,399억에서 2025년 3월 말 기준 KES 4,216억으로 감축된 것.
- 이번 미지급금 감소는 주로 인프라 부문, 특히 도로 관련 체불금 지급에 기인하며, 해당 재원은 도로 유지보수세 수입을 활용해 충당됨.
- 재무부는 각 부처 및 정부 기관에 대한 지급을 승인했으며, 국방부도 승인 대상에 포함됨.
- 케냐 도로청(Kenya Roads Board)은 인프라 관련 체불금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세 인상을 기반으로 KES 1,350억 규모의 채권

3)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business/article/201519853/port-of-plunder-how-billions-of-taxpayer-money-could-be-lost-in-kpa-tender-scandal>

4) <https://nation.africa/kenya/business/pending-bills-fall-sh118bn-on-fresh-state-payments-5056966>

발행을 승인받았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 의무를 관리하고 재정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일환.

② PPP 관련 동향

○ NBI-마우서밋 고속도로 추진 본격화⁵⁾

- 나이로비-나쿠루-마우 서밋-엘도렛-말라바 구간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가재무부 수석차관 주재로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
- 회의에는 내무부, 도로부, 에너지부, 수자원부 등 주요 부처와 기관이 참석,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 사업은 PPP로 추진되며, 동서 케냐를 연결해 역내 물류 흐름을 개선하고, 케냐 및 동아프리카 지역의 무역과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케냐의 우선순위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지정

○ 말라위, 세계은행 지원으로 358.5MW 수력발전소 착수⁶⁾

- 세계은행, 말라위의 음파타망가 수력 발전소(Mpatamanga Hydropower Storage Project - MHSP)에 USD 3억5천만 규모의 지원 승인.
- 완공되면 연간 1,544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100만 가구 이상에 전력 공급과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프로젝트는 PPP로 추진되며, 말라위 정부와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공동으로 개발 중. 프랑스의 EDF, SN 말라위 BV 등이 전략적 투자사로 참여.

○ 우간다, IsDB와 USD 8억 인프라 자금 협약 체결⁷⁾

- 우간다, 이슬람개발은행(IsDB)과 USD 8억 규모의 금융 협약 체결. 협약으로 표준궤철도(Standard Gauge Railway, SGR) 사업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예정
- 협약은 2025~2027년 IsDB-우간다 간 국가 협력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5) <https://newsite.treasury.go.ke/meeting-project-steering-committee-nbi-mau-summit-highway-key-national-infrastructure-project>

6)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5/05/15/malawi-de-woldbank-approves-gar-financing-for-lardak-358-5-mw-mpatamanga-hydropower-storage-project>

7)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uganda-signs-800m-financing-deal-with-saudi-bank-for-sgr-5052334>

철도뿐 아니라 보건, 교통,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투자도 포함

- SGR은 케냐의 기존 철도망과 연결되어 우간다에서 인도양 항구(몸바사)까지 육상 물류 통로를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무역과 연결성이 대폭 확대 기대.

○ 우간다, 레이크 알버트 석유 개발 통해 LPG 경제효과 기대⁸⁾

- 우간다는 레이크 알버트(Lake Albert) 석유 개발 사업을 통해,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생산 측면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함.
-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COP)은 토탈 에너지(TotalEnergies)와 중국의 CNOOC가 주도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우간다산 원유를 탄자니아의 탕가(Tanga)항까지 운송하여 수출 및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을 목표로 함.
- 환경단체의 반대와 자금 조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
- 개발 계획에는 호이마(Hoima) 지역에 하루 6만 배럴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시설은 국내 및 지역 수요 충족을 위해 LPG를 비롯한 다양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예정
- 본 프로젝트는 석유 자원을 산업화 및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 에너지 시장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일환.

○ 케냐, 재정 압박 속 말라바 SGR 연장 전액 중국에 요청⁹⁾

- 케냐 정부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나이바샤(Naivasha)에서 말라바(Malaba)까지 이어지는 KES 5,816억 규모의 표준궤 철도(SGR) 연장 사업에 대해, 당초의 비용 분담 모델을 폐기하고 전액을 중국 측에 지원 요청함.
- 이와 같은 전환은 공공 지출 증가, 국민 시위로 중단된 세제 개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세수 등으로 인해 자국 재원만으로는 사업 추

8)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uganda-eyes-lpg-windfall-from-lake-albert-oil-projects-5055232>

9) <https://eastleighvoice.co.ke/naivasha-malaba%20sg/154919/kenya-asks-china-to-fully-fund-sh581-6bn-malaba-sgr-extension-and-fiscal-strain>

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롯됨.

- 루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는 철도 규격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의제의 핵심은 재원 조달 문제였으며, 케냐는 대안으로 민관협력(PPP) 및 양허성 차관 활용 방안을 모색 중임.
- 중국은 케냐의 기존 SGR 관련 미지급 부채(KES 6,926억)를 감안하여 추가 자금 지원에 앞서, 보다 강력한 수익 보장을 요구하였음.
- 케냐 정부는 이번 SGR 연장 사업이 우간다,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DRC)과의 역내 무역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추진 의지를 고수하나, 구체적인 완공 일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

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

○ 루토 대통령, 케냐 최대 저소득층 주택 1,080세대 공식 이전¹⁰⁾

- 루토 대통령, 남부 엠바카시(Embakasi South) Mukuru 지역에 조성된 1,08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식적으로 입주민에게 이전할 것이라 발표(25.5.20).
- 본 사업은총 13,248세대로 구성된 케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소득층 주택 사업으로, 56에이커 부지 위에 조성.
- 본 사업은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Programme)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연간 20만 호, 5년간 500만 명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비공식 거주지를 안정적인 정주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둠.
- 정부 대변인 아이작 므와우라는 해당 지역 명칭을 더 이상 ‘Mukuru Slum’ 이 아닌 ‘Mukuru Estate’ 로 부를 것이라 밝혀, 도시재생의 상징적 전환점임을 강조

○ 케냐 정부, 전력 인프라 확충 가속¹¹⁾

- 전력 인프라 안정성과 수용 능력 확장을 위한 조치로, Kenya Power는 입찰 중 제기된 공공조달행정심의위원회(Public Procurement

10) <https://www.the-star.co.ke/news/2025-05-20-on-the-radar-ruto-to-hand-over-1080-housing-units-in-mukuru-housing-project>

1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industry/kenya-power-cleared-to-buy-sh1-2bn-transformers-in-tender-row-5050032>

Administrative Review Board - PPARB)의 이의신청이 공식적으로 기각하면서 총 KES 1.2억(약 USD 9.2 million) 규모의 변압기 조달을 재개 행정적 승인을 확보.

- 본 지원은 변압 설비 노후화 대응을 목표로 하며, 송배전 손실 감소, 신규 수요 수용 능력 강화, 그리고 향후 재생에너지 통합을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인프라 관점에서 볼 때, 조달의 지연 없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프로젝트 실행력을 높이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
- 조달 과정이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국가 단위 에너지 전환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지속 가능하게 구축될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

○ 케냐 CA, KES 50억 규모 디지털 인프라 확대 착수¹²⁾

- 케냐통신청(Communication Authority-CA)은 Kenya Power와 협력하여 KES 50억 규모의 광섬유 Last Mile Connectivity 사업 인프라 구축 계획 착수, 전국 3,800개 공공기관 및 시설에 고속 인터넷 공급 계획 중
- Universal Service Fund 2023-2027에 따라 47개 ICT 센터와 1,450개 디지털 허브를 추가 설치하고, 교육·농업·시각장애인 콘텐츠 디지털화 등 포괄적 디지털 전환이 추진.
- 현재까지 156개 지역에 모바일 통신망이 구축, 886개 공립 고등학교가 고속 인터넷에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사법부, 우편, 방송 등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반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이 동시에 향상 기대

○ Narok 공항, 인프라 미비·수요 부족으로 상업항공 유치 난항¹³⁾

- 현재 활주로 길이, 주요 시설 부족으로 인해, Narok 공항은 대형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하며 상업 항공사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고 있음

12)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5/govt-taps-sh5bn-fund-to-expand-digital-infrastructure/>

13) [Why Narok airport is not key pick for aviation sector players](#)

- 지역 항공 수요가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여행객이 비용 효율성 때문에 육상 교통을 선호하는 구조도 운영 타당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인근에 나이로비 월슨 공항 등 대체 공항이 존재하는 점도, Narok 공항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침
- 시설 투자와 중장기적 연계 전략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나록 공항이 케냐 항공 산업 내에서 주요 거점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케냐, 석유·가스 탐사 투자 유치 본격화¹⁴⁾

- 케냐 정부, 2023-2027 Strategic Plan에 따라 KES 1,453억 규모의 석유·가스 탐사 투자 유치를 목표. 현재 63개 석유 블록 중 단 9개만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미개발 블록에 대한 투자 유인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
- 정부는 국가 석유정책(National Petroleum Policy) 제정을 통해 투자 신뢰 제고, 자원 관리의 형평성 확보, LPG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
- 과거에는 투자자 관심 부족과 자금 조달 문제가 탐사 사업에 장애로 작용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인프라 측면의 유인 전략 도입 중
- 계획엔 Lokichar-Lamu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등 주요 기반시설 구축도 포함되어 있어, 자원 수송 효율화와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이 병행될 전망

○ 우간다, 신규 투자 계획 통해 철도 부문 재건 모색¹⁵⁾

- 우간다는 국가개발계획 IV(2025-2030)에 따라 철도 인프라 재건과 확장을 위한 철도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우간다 철도공사(Uganda Railways Corporation, URC)는 신규 기관차, 객차 및 화차를 도입하고, 철도망을 현재 258km에서 2029년까지 768km로 확장할 계획. 이는 카라모자(Karamoja) 및 북부 지역에서의 대규모 확장이 포함됨.
- 2024년 10월, 우간다는 터키의 야피 메르케지(Yapi Merkezi)와 캄팔

14)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business/article/2001519509/state-eyes-sh145b-investments-in-oil-gas-exploration-by-2027>

15)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uganda-s-railway-eyes-revival-with-new-investment-plan-5055030>

라(Kampala)에서 말라바(Malaba)까지 이어지는 272km 길이의 표준궤 철도 건설 계약(27억 유로 규모)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케냐 철도망 및 몸바사 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무역 활성화, 물류비 절감,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우간다는 철도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과 8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계약을 체결함.

④ 정치 동향

○ 동아프리카연방 구상, 통화·정치연합까지 단계적 추진¹⁶⁾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는 장기적으로 8개 회원국을 하나의 정치·경제 단위로 통합하는 동아프리카연방(East African Federation- EAF) 구상을 추진 중이며, 실현 시 면적과 인구 기준 아프리카 최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 연방은 관세동맹 → 공동시장 → 통화연합 → 정치통합 순의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공용어로는 스와힐리어 도입이 제안.
- 주요 기대효과로는 통합 시장을 통한 무역 활성화, 투자 유치, 청년 인구(30세 미만 65%) 기반의 경제 성장 촉진 등이 제시
- 그러나 정치제도·경제력 격차, 언어 다양성, 통합에 대한 대중 인식 부족 등 구조적 과제가 존재하며, 예산 불균형과 분담금 체납도 연방 추진의 실질적 걸림돌로 지적

○ 케냐, 미-중 외교 견제 속 외교 독립성 강조¹⁷⁾

- 케냐 국방·외교·정보위원회 위원장 Nelson Koech, 미국 상원의원 짐 리시의 비판에 대해 반박, 케냐는 “압박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강조
- 리시 의원은 루토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발언을 문제 삼으며 케냐의 외교 노선 변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미·케 관계 재평가

16) Why proposed East Africa Federation will be regional force to be reckon with

17) <https://www.standardmedia.co.ke/politics/article/2001519456/koech-kenya-wants-partnership-not-pressure-from-us>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Koech는, 중국과의 협력은 다자주의와 공정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요청일 뿐, 동맹 전환이 아니며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는 여전히 공고하다고 표명
- 중대한 선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국과의 재정 갈등 속
신임 총재 선출 예정¹⁸⁾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올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Abidjan)에서 열리는 연차총회 기간 중 신임 총재를 선출할 예정. 이는 미국 정부의 5억 5,500만 달러 지원 삭감 제안 등의 재정적 상황 속 진행됨.
 - 이번 총재 선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잠비아, 차드, 모리타니의 후보 5명이 출마.
 - 새로 선출될 총재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 복원 설득,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요청,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자금 출자 증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
 - 이번 선거 결과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대륙 개발 과제 대응 역량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

18) <https://nation.africa/kenya/news/africa/high-stakes-election-afdb-to-choose-new-leader-amid-us-funding-dispute-5058448>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Angama Mara Airport Upgrade ¹⁹⁾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Kenya Airports Authority (KPA)
- (도 급 사) 미확정
- (사 업 비) KES 691 million
- (편 당) 케냐 정부
- (사업내용)
 - 1단계: 기존 1,260m 활주로의 폭 18m → 23m 확장, 외곽 펜스 설치 및 공항 신규 계류장 건설.
 - 2단계: 활주로 2,500m, 30m 폭으로 연장, VIP 라운지 신설
 - 3단계: 대형 항공기 수용 가능한 길이 3,300m ,45m 폭 신규 활주로 건설
- (추진현황)
 - 2021년 8월, 케냐 공항청(KAA)이 앙가마 마라 활주로를 포함한 6개 활주소에 대한 단계적 확장사업 착수. 동일 시점 기준, 전체 공정률 약 12%
 - 현재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공사 지속 중

- (주요상황) 완공 시 케냐 제5의 국제공항으로 지정 예정, 마사이 마라 지역과의 직항 국제 연결성 강화 기대. 케냐 공항청(KAA)의 6개 활주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총 6억9,100만 케냐실링(KES) 예산 투입. Code C급 항공기 수용 가능 설계로 여객 수용성 및 대형 항공기 운항 확대.

19) <https://www.tnx.africa/rift%20valley/article/2001514363/narok-airstrip-upgrade-to-boost-kenyas-tourism-industry>

② Lokichar-Lamu Crude Oil Pipeline (LLCOP)²⁰⁾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Government of Kenya (Ministry of Energy and Petroleum)
- **(도 급 사)** Front-End Engineering Design (FEED): John Wood Group; and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EPC): Toyota Tsusho
- **(사 업 비)** USD 1.2 billion
- **(편 당)** 정부 주도 재원 조달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 유치 및 국제 금융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실행 단계의 재정 확보 추진
- **(사업내용)**
 - 파이프라인 연장: 892km
 - 파이프라인 지름: 초기 18인치,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24인치 확장
 - 설계 수송량: 일일 8만 배럴(최대 13만 배럴까지 확장)
 - 투르카나, 삼부루, 이시올로, 메루, 가리사, 라무 카운티 경유
 - LAPSET 회랑 핵심 인프라로서 역내 무역 및 연계성 강화
- **(추진현황)**
 - 현재 예비 투자결정(Pre-FID) 단계로, 정부는 유전개발계획(FDP) 확정 및 인허가 확보에 주력
 - 케냐재무부, 상세 설계, 토지 조사, 보상 절차 등을 위한 예산을 KES 8억9천만 증액
 - 에너지석유부, 노선 인근 이주 및 보상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선정 작업 진행 중
 - Tullow Oil, 주요 사업자로서 투자 파트너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지연 발생

- **(주요상황)** 2024년 3월: 기존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해 사업 향방 불투명, 정부는 재공고 및 신규 투자자 유치 추진 계획 발표. 2024년 12월: 국가 물·위생 계획(National Water and Sanitation Plan)에 Mzima II 사업이 포함되며 정부의 이행 의지 재확인, PPP 방식 도입을 통한 본격적 재추진 기대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해당사항 없음

20) <https://www.petroleum.go.ke/midstream>